東友會報

發行人 鄭在哲
印刷人 李揆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8568
(274)7449
交換 (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攝心信實
慈愛度世

鄭在哲회장 만장일치 推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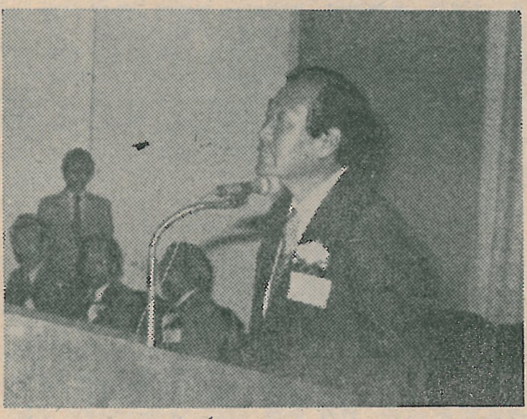
第14次 定總서 總務·組織등 부회장 25명選出

豫決算·사업計劃案 통과

鄭회장 "大躍進 기틀確立"다짐

○…東國大學校同窓會 제14차 定期總會는 鄭在哲회장을 제12대 동창회장으로 재추대하였다。지난5月28日(土)오후3시 모교 東國館5층에서 열린 定總에서는 제41차 理事會(5·16)의 결의사항인 鄭在哲同門의 會長 재추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崔載九 전會長의 명예회장추대및 總務·組織·財政·弘報·奬學·體育등 각 위원회별 담당부회장 25명과 監事3명의 選任案도 異議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함으로써 本會는 조직강화·장학사업·동창회관 건립 추진등 금년도 力點事業에 박차를 가할수있게 됐다。…○

3백여동문이참석한 가운데 금년 새로 준공된 東國館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任員추대에 앞서 「東國을 빛내준 同門祝賀會」도 가져 鄭회장은 제16회 大韓民國 科學技術奉仕賞을 수상한 金昊濟(64농학)교수를 비롯、8명의 同門에게 각각 祝賀牌및功勞牌를 수여했다。


◇취임인사를 하고있는 본회 12대회장 鄭在哲동문。

이어 總會案件을 상정시켜 81·82회계년도의 결산감사보고서를 심의、통과시키고 83회계년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안도 집행부의原案대로 확정했다。

제41차 理事會의 심의를 거쳐 이날 總會에서 확정된 83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①東友奬學會 설립에따른 奬學事業확대 ②組織 강화 사업 ③東國人名錄 5집 完刊 ④동창회관 건립추진 ⑤東友會報 增部 발간 ⑥모교 재학생지원사업 확대등이다。

鄭會長은 人事를통해『다시 2年間 會長職을 맡으면서 母校의 歷史와 傳統을 새롭게하는데힘쓰겠다』고 말하면서『향후 2年間은 단위조직의 활성화、財政委員會 활동의 극대화、장학사업、體育東國의 傳統확립등에 力點을 두겠으며 현재 會長중심의 同窓會운영을 副會長으로 구성되는 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적관리 운영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대 同窓會任員명단

▲고문=趙明基(31中佛·前모교 총장및 동창회장) 鄭斗石(31中佛·前모교 총장) 金殷夏(52政治·國會議員)

▲명예회장=崔載九(52국문·前동창회장)

▲회장=鄭在哲(52정치·국회 재무위원장)

▲總務담당 副會長=洪鳳來(53法學) 洪淳池(52政治) 柳根昌(49專門)

▲조직담당 부회장=金鎭福(52정치) 朴辰熙(52경제) 金容彩(54법학) 洪淑子(55정치) 孟殷在(61정치) 金完基(75경원)

▲재정담당 부회장=文泰植(49전문) 金聖涉(53정치) 金銘善(61경제) 朴埈亨(63경제)

▲홍보담당 부회장=崔致根(52국문) 禹鍾植(52경제) 朴完一(61불교) 禹國一(78행원)

▲장학담당 부회장=南都泳(52경제) 文明麟(54정치) 金東正(57법학) 秋東憲(65대원)

▲체육담당 부회장=閔容植(49전문) 柳周馨(57농학) 李英駿(59법학) 鄭相永(61법학)

▲감사=金寬性(50불교) 吳承泰(63경제) 尹天泳(66농학)

會費안내

年會費	1만원
理事會費	5만원
常務理事會費	20만원
監事會費	50만원
廣告料	별도청구

캐비닛등 기증

數學科동문회

數學科동문회(회장=鄭址鎬)는 지난5월25일 수학과재학생용 개인사물함 75점과 大學院 재학생용 캐비닛4점、책상4점을 각각 기증했다。

定總겸 野遊會 열어

全北支部 會發展에 同參결의

全北지부동창회(회장=金三龍)는 지난5월15일(日)완주군 소재 송광사에서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겸 춘계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裡里지회 朴沆植회장(50국문)、정주지회 宋榮會회장(64경영) 김제지회 池祥洙(61법학)회장、군산지회 朴漢鍾(72경행)임시회장등 전북 각 지회에서도 참석、지회의조속한 결성과 전북도내 소재동문을 파악、동회 발전에 적극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를 마친 동문들은金勇간사(66사학)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을 개최、동문 상호간의 우애를 다졌다。

奬學기금 確保논의

경영과 이사회

經營學科東友會(회장=李昌圭)는 지난6월15일 오후6시30분 시내 엠베서더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간사에 申益炫(72경영) 동문을선출했다。

理事상호간의 우의증대를 위해 만찬회를겸한 이날 이사회에는 趙熙榮(모교총무처장) 金容均(63경영) 成百幸(66경영) 명예회장과 李昌圭회장을비롯 理事20여명이참석、재학생 장학기금확보문제등 同會발전에 대해 광범하게 논의했다。

이에앞서 同會는 경상대학장실에 30만원상당의 카페트를 설치한바 있다。

카나다支部 任員 개선

신임會長에 吳昌燮동문

團體會費5백弗 本會로송금해와

在카나다동문회는 지난 3월19일 韓人회관에서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同會는 50여명 회원이 진한東友愛로 뭉쳐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는 물론 모교와 본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가장 활발한 해외 동문회의하나。이날 정기총회에서 개편된 임원진을보면 鄭觀豊(60철학) 회장 후임에 吳昌燮(60경제) 동문、朴昌淑(74과교) 부회장 후임에 曺芳舟(58국문) 동문등이 선출됐다。

同會는 또한 在카나다同門會 소속 동문의 住所錄과 함께 금년도 본회 會費로 지난6月28日 5백불을 송금해 오기도 했으며、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체육부 후원금、年會費단체납부、조직확대및 동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사업을 펼쳐오고있다。

故國에서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 타국에서 東友愛를 나누고 있는 同會는 카나다內 어느 大學 동문회보다 활발하여 카나다를 방문하는 東國人의 여행안내뿐만 아니라 수시로 환영회도 개최해 오고 있다。本會는 지난해 8月 校旗 1점을보내 在카나다동문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하는계기가되도록격려한바있다。

새로 선출된 在카나다同門會 83년도 임원 명단은 다음과같다。

▲고문=千允基(50경제 유임)

▲회장=吳昌燮(60경제)

▲부회장=兪永穆(64경제)、曺芳舟(58국문)

▲총무=金圭哲(70정외)

▲섭외=嚴柱益(67상학)

▲문화=李汀九(76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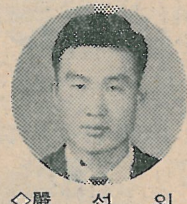
◇千允基 고문

◇吳 회장

◇曺 부회장

◇兪 부회장

◇金 총무


◇嚴 섭외

◇李 문화

"모두 會費精誠을" 銀行지로 利用바라

「동창회기금 확보의 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健勝하심을 비오며 그동안 본회 발전에 物心兩面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적은재정속에서도 東友會報제작、慶弔事참여、후배 奬學事業등을 벌여 많은 成果를 거둬왔으며 今年에는 더욱 알찬 운영과 未來指向的인 사업을 통해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本會는 전체 동문의 參與의식을 고취시키고 年會費및 각종 基金 납부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지난 6月부터 銀行지로를 채택、활용하고 있읍니다。

우리 동창회 활동은 잘 아시다시피「先財政、後事業」이오며、基本財源은 年會費입니다。동문 여러분께서 年會費를 빠짐없이 납부해 주시는 일은 곧 본회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되며、나아가 동창회 기금확보와도 연결이 됩니다。이에 本會에서는 회비납부의 편의를 위해 모교 재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어 직접 방문、접수하고 있읍니다。

한편 地方및 직장、학과、친목별 단위東友會에서는 종전대로 회비를 단체로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으며、저희 사무국에 연락해 주시면 직접 찾아 뵙고 접수토록 하겠읍니다。

아무쪼록「동창회기금 확보」를 위한 會費納付에 여러동문께서 앞장서 주시고、주변에 있는 동문들에게도 알리어 너나없이 同參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납부 방법

1、지로통지서를 받은 후 시내 전銀行 99번 窓口에 납입。

2、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용지를 가지고 各 우체국 換貯金係에 拂入。

3、本 사무국에 전화(267-8568)연락 주시면 방문접수함。

1983년 7월

東國大學校同窓會 事務局

本會 제12대 會長團 프로필

○… 本會 제14차 定期總會에서 鄭在哲會長은 현재 會長中心의 동…○
○…창회 제반 업무를 3～4명의 부회장이 주관하는 위원회 중심…○
○…으로 운영해 나갈 것과 직능별로 제반업무를 분리, 활성화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다음은 앞으로 2年間 本會를 이끌어나갈…○
○…會長團(總務·組織·財政·弘報·奬學體育담당 副會長) 프로필ー。 …○

顧問

◇趙明基 고문 <前모교總長및 同窓會長>

◇鄭斗石 고문 <前모교總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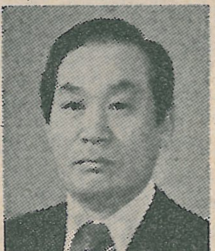
◇金殷夏 고문 <國會議員>

名譽會長

◇崔載九 명예회장 <前동창회장>

鄭在哲 회장

多方面서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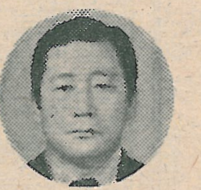
52年 政治科卒。언론계·학계·관계·금융계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왔으며 현재는국회 재무위원장의 중책을맡고있다。

62年 보사부 공보관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전매청 기획관리관및 차장,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한국産業銀行부총재, 신용보증기금 초대이사장, 한일은행장, 민정당 재정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등 재정·금융 분야만 20년이상 몸담아온 財政通。

81年5月9日 본회 제11대 회장에 추대되어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우의증진은 물론 東友奬學會설립, 모교지원, 체육부 지원, 會報발간등으로 동창회가 명실상부한 東國발전의초석이 되고자 애써 오고 있다。업무추진에는 빈틈이없지만 평소에는 소탈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특히 財界에 발이 넓다。

總 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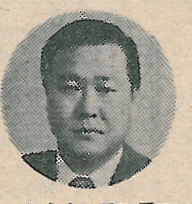
洪鳳來부회장…會發展의 증인



53年法學科卒。전국佛敎信徒會부회장역임。東國學院이사로서 현재 모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있다。白性郁회장때부터 동창회발전에 참여, 본회 발전의 산證人인셈。度量이 넓고 자상하며 理解心이 많기로 소문나있으며 매사에 신중하다。

현재 東洋金屬工業(株)와 東海白土(株) 대표이사로 우리나라 금속공업발전에 앞장。철탑산업훈장등 수상。

洪淳池부회장…每事에 熱誠的



52年 政治科卒。오래전부터 본회 理事및 常務理事로서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모든 일에 열성적。

대일양행 (株) 대일유업 (株) 대표이사 역임。현재 퍼시픽 콘트롤즈 (株) 대표이사。서울大 經營大學院 최고경영자과정수료。東緣會 멤버。

柳根昌부회장…軍要職 두루

49년전문부卒。軍將星 출신으로 현역 재직시 대간첩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육군중장 예편후 국방부차관·원호처장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국토지 개발공사 사장도 역임。46년 육사2기 출신。동우장학회 이사로서 모교및 본회 발전에 앞장서 오고있다。본회 부회장및 이사를 두루 역임。현재 林光土建(株)회장。

組 織

金鎭福부회장…국회의원 지내

52年政治科卒。서울신문社論說委員室長, 한국방송공사 解說委員, 南北赤十字會談자문위원을거쳐 9대 國會議員 역임。모교 法政大교수로도 在職했었다。東大新聞編輯局長, 主幹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5대 東國山岳會 會長, 2대 東大新聞同人會長등을 맡으면서 本會 支會발전에 크게 공헌。

朴辰熙부회장… 大邱支部고문

52年經濟科卒。지난 81년에 本會 常務理事로참여, 모교및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오고있다。朴부회장은 대구 경북지부지부장, 고문등으로 활약, 단위 조직 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물심양면으로 대구지부 조직강화에 헌신。현재 慶北鑛油(株) 대표이사。

金容彩부회장… 釜山지부회장

54년法學科卒。모교에 입학하기전 경찰전문학교를 졸업, 20여년을 경찰계에 몸담아 왔다。慶南警察局査察分室長역임, 국제로타리 西釜山支部 6代회장, 대한민국八角會 부산지구회, 전국결혼예식업협회 부이사장등 다방면에서 활약。현재 부산소재 제일호텔 고려예식장 대표。

洪淑子부회장…女性界지도자

55年정치과졸。東女會 명예회장으로 女性同門을 이끌어 오고있으며 본회 회장단의 홍일점。여성外交官 제1호로 뉴욕 총영사관부영사를지내기도。

그동안 세계女性지도자협의회(ICW)홍보분과 제1부위원장, 여성사회진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한국대표로는 최초로 지난해 9월 ICW부회장에 피선되기도 한 우리나라 여성계의 지도자。

孟殷在부회장… 行大院회장

61년 政治科졸。활동 반경이 특히 넓고 매사에 적극적이다。본회 仁川지부장, 61년 정치과 동기회, 東青會, 행정대학원동창회등에 관여, 東國과의 因緣이 남달리 깊은 셈。한국교육공사 대표 역임。

京畿道政, 경기도 총력안보협의회부회장, 인천시 새마을금고협의회장뿐만 아니라 노인학교, 유치원등 복지사업에도 앞장서왔다。현재국회의원。<行政大學院동창회장>

金完基부회장…經大院회장

75년 經營大學院 졸업。한국경제연구소 상임위원, 한국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아세아 청년협회이사,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부회장, 韓日경영자세미나1～5차 대표단장등역임<經營大學院同窓會長당연직>

財 政

文泰植부회장…愛校心뛰어나

49년 專門部 史學科졸。지난 76년이래 4대째 부회장을 맡고있는 동창회의 숨은 공로자。지난 71년의 축구후원회 발기 멤버, 東國開校 70주년장학사업및 東友奬學會에도 앞장서 오는등 愛校心이 남달리 강하다。

현재 KS표시 파일·전주등 콘크리트 제품업체인 아주산업(株) 대표이사。

金聖涉부회장… 조용한實踐家

53년政治科卒。지난 78년부터 本會부회장으로 활약해 오고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써 동창회발전에 크게기여。축구후원회 발기멤버, 동우장학회 이사를맡고있다。신일기업(주) 부사장, 대영섬유공업(株) 대표이사 역임。현재 大韓毛紡工業(株) 대표이사。

金銘善부회장… 織物工業경영

61年經濟科卒。대구 백양염직공업사 대표역임。한때 직물 도매상을경영하기도。

그동안 본화 상무이사로서 모교및 본회 발전에 적극 참여해 왔다。현재는 東珍織物工業株式會社 대표이사。

朴埈亨부회장…후배에 관심커

63년 經濟科졸。명화직물주식회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역임。현재는 신라교역(株) 대표이사。

東友奬學會 이사로서 장학사업등으로 후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弘 報

崔致根부회장…言論人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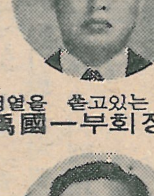
52年國文科卒。東亞·朝鮮·韓國日報등 주요 日刊신문사를 두루거쳐 (株)文化放送·京鄕新聞 편집국장및同연수실장, 한국연합광고(株) 상무이사역임。본회 이사, 동국언론인회 회장, 본회 편집위원도 지냈으며 제2회 東谷賞 언론공로상을 수상。

禹鍾植부회장…전문經營人

52년경제과졸。한일섬유(株) 사장, (株)원기업 부사장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力量을 발휘해왔다。太平洋개발(株) 부사장을거쳐 현재는 대표이사 사장。

그동안 本會상무이사및 東緣會멤버로 東國人 유대강화에 크게기여。

朴完一부회장…曹溪宗團 일꾼



61年佛敎科卒。현재 대한佛敎曹溪宗 전국 신도회 회장。재학시 佛大학생위원장。불교청년회부회장, 전국불교신도회 사무총장을 거쳐 상임부회장, 서울불교신도회장을 역임, 布敎에 정열을 쏟고있는 宗團의 일꾼。

禹國一부회장…예편 장성출신

78년 行政大學院 석사과정졸。재학시 행정대학원 학생회장을지내는등 매사에활동적이며 사명감이 투철한 예비역 장성。보안사령부 참모장, 합참 정보국차장등 군요직을 두루거쳤다。현재 한국보험공사연수원장

奬 學

南都泳부회장… 史學界중견

52년경제과卒, 회장단중 유일하게 모교현직교수(師大 國史敎育科)로 재직중。모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마치고 75년에 文博 학위 수령。그동안 모교교수로 재직해오면서학생처장·사대학장등 중책을 맡으면서 동국발전에 크게공헌。현재 중앙도서관장。행정·사법고시위원, 문교부교과 과정심의위원등을 지내기도 했으며「韓國馬政史硏究」「韓國史」등 力著를 낸 史學界중견。

文明麟부회장…리더쉽 뛰어나

54年政治科卒。현재 海運港灣廳長, 국제항만협회 집행위원。재학시 총학생회장, 캘리포니아大學 유학시는 재미 남가주 韓人유학생회장으로 발군의리더쉽을 발휘。항만청 차장, 교통부차관등 역임。

金東正부회장…法曹界서 활약

57年法學科卒。지난74年부터 부회장으로 本會발전에 적극참여。회장단중 유일한 法曹人。57年 판검사 특채시험에 合格。軍法務官, 서울高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약。

秋東憲 부회장…活動반경넓어

65年大學院卒。해병大領 예편후 73년 한국자동차보험(株)에 입사, 기획실장, 중부지점장, 상무이사등 역임。

본회이사와 자동차보험 東友會 고문으로 활약, 강한 애교심을 발휘하면서 본회발전및단위 조직활성화에 남달리 공헌。

體 育

閔容植부회장… 蹴球후원회장

49年 專門部卒。재학시 축구선수로 활약한바 있으며 모교 축구후원회 회장도역임。현재 일우해운(株)대표이사오랫동안軍에 몸담았다가 65년 해병대 대령으로예편。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등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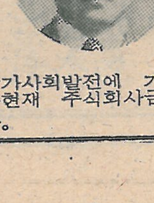
柳周馨부회장…會發展 견인차

57年農學科卒。지난78年부터 本會 부회장으로활약。재학시 학도호국단총운영위원장겸 농대운영위원장, 대학원 학술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大成毛紡工業(株) 대표이사회장 역임。지난해개교한 惠田전문대(충남 홍성)초대 학장에 취임。

李英駿부회장…조직확대 앞장

59년법학과졸。오랫동안 파주동우회장을 맡아와 본회의 지방 단위 조직활성화의 숨은 공로자。西獨쾨른大 대학원 유학시 서독유학생회장을 지내는등 리더쉽이 뛰어나다。현재국회의원으로 활약。

鄭相永부회장…大企業體 경영



61년법학과졸。본회상무이사로서 모교발전에 크게 기여。지난해엔후문을 새로건립, 회사하기도。현대건설(株) 상무이사, 현대자동차공업(주) 부사장역임。산업역군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鄭동문은현재 주식회사금강, 고려화학 대표이사。

제14차 定期總會 스케치

前進과 和合위한 轉機

새歷史 창조에 六萬동국인 同參결의

地方同門 대거 참석·團結力 과시

그동안 6萬 東國人의 求心體 역할을 맡아온 本會가 지난 5월28일 정기총회를 개최, 鄭在哲회장을 중심으로한 12대 회장단을 출범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진과 화합을 위한 일대전기를 마련했다。더우기 금년은 母校가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모교의 새로운 역사와 전통창조를 위해 本會의 역할이 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 鄭會長은 단위조직 활성화、장학·체육사업에 力點을 두고本會업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해나감으로써 同窓會가 東國발전의 초석이 될것을 다짐했다。

東岳을 둘러싼 五月하순의 녹음이 서서히 질어가는 이날오후3시 오랫만에「永遠한 마음의故鄕」인 모교를 찾은 同門들은 한결같이 밝은表情이었다。本會는 이번總會場所를 81년말 착공、1년여의 工事끝에 금년 2月말 완공한 모교 단일건물로는 최대규모인東國館으로 결정、발전하는 東國像을 同門들에게 선뵈기도 했다。

申益炫本會 事務局次長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會順에따라 鄭회장은 인사를 통해『본인이 다시 제12대회장에 추대됨으로써 앞으로 2년간 東大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힘쓰겠다』면서『同門상호간의 우의증진을 꾀해 나감은 물론 東友奬學會 사업확대 추진、동창회관 건립추진、체육·학술·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母校를 지원、본회발전과 모교 발전을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것』을 다짐、참석동문들로부터 수차에걸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總會에는 黃壽永총장이 慶州大訪問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母校에서 李丙疇(文科大)南都泳(도서관장)崔世和(교육대학원장)趙熙榮(총무처장)등 모교간부및 敎職員 다수가 참석、자리를 빛냈다。

東國大學校同窓會定期總會
◇제14차 定期總會 광경

東國빛낸同門祝賀

總會案件 上程에 앞서 受賞·博士學位 취득·모범등「東國을 빛낸同門」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博士학위 취득同門
▲金恒培(62哲學)=철학 박사 ▲文永午(66국문)=文學 박사 ▲宋鍾辰(76경영대원)=法學박사 ▲李炳華(64정치)=政治學 박사 ▲朴相文(66국문)=文學 박사
◇受賞同門
▲金炅濟(64농학)=제16회 大韓民國 科學技術봉사상 수상▲張明奎(82미술)=제6회 中央美術大展 大賞 수상。
◇模範同門
▲金貞愛(59佛敎)=東女會 회장으로서 本會및 모교 발전에 헌신 노력。

豫決算案통과

이어 定總本案件에 들어가 南基一본회 사무국장의 經過報告가 있은뒤 金寬性 감사로부터 81·82회계년도의 감사 보고가 있었다。각종회의·행사·재학생 격려 사업·체육부 지원사업및 본회 일반업무의 81·82회계년도에대한 南국장의 경과보고는 아무런 이의없이 출석 회원 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81·82회계년도의 결산감사도 金寬性감사로 부터「적정의견」이란 보고가 있자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통과시켰다。

會長만장일치추대

任員推戴에 있어서는金鎭福(52국문) 동문을 임시의장으로 추대、진행되었다。鄭在哲회장이 본회 會則 제9조1항에 따라 제41차 이사회에서 12대 회장으로 유임되었다는회장 선임경과보고겸 추대 동의가 있자 동문들은우뢰와같은 박수로 鄭會長을 맞이했다。

鄭회장은 취임인사를통해 감격에찬목소리로『앞으로2년간은 본 동창회가 대발전·대약진하는해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①직장·기별·지역·학과동 단위조직 활성화②전체동문의 참여폭확대③각위원회중심으로 본회업무의 효율적관리운영④재정 장학·체육 지원사업외극대화 ⑤동창회관건립추진에역점을 두고 동창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말했다。

또한 鄭會長은 41차理事會에서 위임받아 12대 동창회를 이끌어나갈 副會長및 監事를 選任、추대同意를 구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 회칙 第9條1항에 의거、이날 선임된 회장단은 總務·組織·財政·弘報·奬學·體育등6개 업무담당별로 총25명이 선임됐으며 監事는3명이 선임됐다。鄭회장이 28명의 任員 명단을 발표하자、참석同門들로부터 뜨거운박수를받으며 한사람씩 단상으로나와 인사를했다。

이어 崔載九명예회장은 축사에서『오늘 녹음이 질어가는 東岳에서 전남장성、고흥과 대전 등지의 지방동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흐뭇하다』고 말하면서 동창회의 성격에 대해 언급、『동창회는 선후배가 형제처럼 상부상조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친목단체이므로 동문 여러분이 굳게 뭉쳐서 새로 출범한 회장단에 성원을 보내 모교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會長團및 감사 추대를 마친뒤 41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마친 83회계년도 事業計劃및 豫算案을 上程、原案대로승인받았다。

地方同門대거참석

校歌 제창을 끝으로 정기총회 안건을 모두처리한 뒤 동문들은 東國홀로 자리를 옮겨 연회를 즐기면서 재회의 기쁨과 12代 會長團의 취임과 母校의 發展을 축하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금년도 총회에도 예년과같이 지방동문들이 대거 참석、전국적인 본회조직의 단결력을 과시했다。지역·직장·期別·학과별·친목별등 단위조직강화는 본회 83년도 역점사업의 하나。이날 참석한 지방동문들은 朴來春(50국문·전남長城)、具壽榮(49전문·忠南大교수)、任千準(54국문·충남지부장)동문을 비롯하여 李範錫(58정치·경기고양동문회장)、朴壽哲(57임학·동두천시교육청)、金完式(71농학·강원高城)、鄭址燦(58경제·의정부)、具本泓(58국문·原州여고)、金貞愛(59불교·東女會長)、申元植(63영문·천안여고)、李信雨(68상학·경기화성)등 20여명이 참석、한층 자리를 빛냈다。

本會 사무국에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난2년간 본회 업무를 결산한 보고서를 간행 배부하였으며 기념타올도 제작、증정했다。동국발전의 주역임을 다짐하는 동문들은「永久不變同窓會萬古成長 東國人」의 결의를 더욱 굳히고 14차定期總會를 모두 마쳤다。

同窓會 활성화에 최선”

鄭在哲회장 定總인사要旨

同門은 한家族과 같아

제반業務 직능별로 분담

鄭在哲회장은 제14차정기총회에서 본회 활동에 각계각층의 동문들을 대거 참여시켜 앞으로 2년간 본회가 대약진·대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에따라 鄭회장은 본회회칙 제9조1항에 의거、본회의 전체 업무를 직능별로 분리、임원진을대폭 강화했다。鄭회장이 번 정총에서 제시한 본회 활성화 방안에는 본회가 동문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교발전의 주체가돼야 함은 물론 대약진의 토대를 마련키 위한 뚜렷한 의지가 표명돼 있다。

특히 금년은 전통과 명예에 빛나는 우리 모교가 民族私學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온지 77년을 맞은해。鄭회장은 제12대회장 취임 人事에서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혀 참석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①동창회의 단위조직강화를위해 조직담당 부회장밑에 지역·직장·기별·친목별 단위장을 위원으로 두어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한다。

②현재 회장중심의 동창회 운영을 업무 담당별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한다。

③각위원회의 機能과 원활화를 기하기위해 각 업무별로 적합한 다수인을 참여시켜 전동문의 참여폭을 넓힌다。

④會費收入 증대와 동창회관 건립기금의 확보를 위해 재정위원회의 활동을 극대화한다。

⑤장학사업에 力點을두어 기금확보는물론 수혜자를 확대시켜 나간다。

⑥체육부 지원으로 體育東國의 전통을 확립해나간다。

본회 제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위해 鄭회장은 대화 동창회는「家族과 같은 血緣體」임을 전제하고 전체동문의 참여의식을 촉구했다。

今年度 주요事業 계획

奬學事業등 在學生지원擴大

目的事業내실로 유대강화도

◇會議및 行事

①定期總會
5月 28日 이미 개최함。任員 추대、결산감사報告、事業계획및 예산안 승인、東國을 빛낸 동문 축하패 수여등。

②定期理事會
5月、9月、12月、1月(신년하례회)등 年 4회 개최。총회의 위임 사항및 本會 기본 운영및 당면 중요사항 결정。

③常務理事會
年 1回 개최。理事會 위임 사항및 중요 업무 결정。

④會長團會議
수시 개최。本會 제반 운영사항 결정。

⑤제12회「東國人의밤」개최

⑥제6회 會長銀盃 쟁탈 東國人테니스대회

◇組織강화사업
支部·支會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2백여개의 단위조직을 3백여개로확대할뿐만아니라 각급 단위 대표자 회의등을 개최、지부·지회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감。특히 금년에는 지역·직장·친목·해외별 조직확산에 역점을 두고 本部와 유대를 강화해나감。

◇동우장학회운영
장학재단 운영과 함께 기금확충위해 장학기금창구를개방、범동국인 장학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감。▲모교재학생(대학원생포함) 장학금지급 ▲학술연구비및 동연구조성비지급

◇동국인명록완간
83年 졸업자 추가·인명별 색인 작업으로 금년하반기로 完刊 연기。가능한한 6만 東國人의현주소를 정확히 수록하여 實費 배포。

◇同窓會館건립 추진
「東國人의 집」이 필요하다는 동문의 여론에따라 지난해 中長期 사업으로 채택함。범동국인참여 사업으로 확대추진。동창회관은 東國 가족의 각종 會合、세미나、단위 모임、結婚、回甲宴、지방동문 숙박、年老동문 휴게실등과 임대 수익을통해 장학사업 확대에 有用。東友會館건립추진위원회(가칭)구성、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임。

◇本會 目的事業

①東友會報增部
현재 1만5천부에서2만부로 늘려 보다 많은 同門이 東友會報를 받아볼수 있게 함。각종 광고를 적극유치하여 會報제작비에 보탬。

②各種會費 수입증대
年회비·理事會費·常務理事회비·會長團분담금·광고협찬금등을 정착시킴。단위 모임 활성화로 年會費 납부권장。

③각종 경조사 참여
각종 경조사에 화환·축전등을 보내 상부상조하는 동문社會의 미덕으로 본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함。

◇母校發展 기여
①奬學金지급
②在學生 활동지원
③모교입시홍보활동지원
④就業 알선
우수한 후배들에게 취업정보 제공및 취업알선

◇會員 個人別 카드화
「동문 찾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6만동문의 개인별 카드 작성

◇會員 權益 사업
본회 공제회、동국 타운(주택단지)건설등을연구하여 유대 강화의 확고한 기반 마련。

◇각종 상담 활동
법률·세무·기타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각종 업무상담에적극 대처。

◇東國을 빛낸 同門祝賀牌 수여 광경

詩部壯元 김정식군

男女高校 文學콩쿠르

개교77주년을 기념하여 동대신문사가 주최한「제21회 全國男女高校 文學콩쿠르」가 5월28일 동국관(L102)에서 열려 詩部 장원에 김정식(대륜고)군이 뽑혔다。

전국남녀 고교생 문학도들을 대상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한국문단을 이끌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위해 매년실시하고 있는 이번 콩쿠르는 詩부문에「탈」「風景」時調부문에「버들피리」「어버이」隨筆부문에「구름」「교복」小說부문에「유혹」「안경」등의 제목을 주고 실시되었다。

이번 콩쿠르의 응모 작품수는 6백여편에 이르며 이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본선(백일장) 참가자는 96명이었다。

◇詩部
▲장 원=김정식(대구대륜고) ▲우수1석=장석남(인천제물포고)
◇時調部
▲장 원=함만식(부산공고) ▲우수1석=임대현(부산공고)
◇隨筆部
▲장원=이선애(숭의여고) ▲우수1석=곽지원(경동고)
◇小說部
▲장 원=안재숙(진명여고) ▲우수1석=장재선(부산진여상고)

行政大學院 학생회

產業시찰·성지巡禮마쳐

행정대학원에서는「83춘계산업시찰및 성지순례」를지난달28·29양일간 행정대원장을 비롯한 지도교수·학생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일대에서 실시했다。

28일 오전10시 대학원교정을 출발한 시찰단은 강릉시청을 방문、강릉지구동문회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경포대、오죽헌등을 둘러보고 다음날인 29일설악산의 신흥사와 낙산사등을 거쳐 오후7시30분께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일정을 모두 마쳤다。

타이틀 방어

鄭鎔範君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鄭鎔範(경행3·웰터급)군이 지난 6月15日 泰國방콕에서 벌어졌던 아시아아마복싱 도전자 대회에서 승、타이틀을 방어했다。

최된 이 대회는 금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아마복싱도 프로복싱처럼 챔피언의 도전 방식으로 운영됐다。우리나라는 鄭군을 비롯、총8명이 챔피언전 6명이 승리、한국아마복싱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古美術답사

美術學科

미술학과주최「古美術하계답사」가 지난16일 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고미술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지방 일대에서 실시됐다。

木友會 공모전서

金漢五동문 大賞

敎育大學院 金漢五(미술교육)동문이「第20회 木友會公募展」에서 大賞을 수상했으며 李鳳順(미술교육)동문을 비롯한 4명이 서양화및 조각부문에서 각각입선했다。

대한佛敎 曹溪宗전국신도회장
朴完一동문

◇1천4백만 佛敎信徒를 대표하는 대한불교曹溪宗 전국 信徒會 회장에 선출된 朴完一동문。

1천4백만 信徒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5대 회장으로선출(전국대의원大會·23일하오·서울올림피아호텔)된 朴完一(61불교)동문。

〃佛敎운동 새章 열기위해 最善〃
信徒 意識化 운동등 전개할 터

『우선 信徒의식화운동을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오늘의불교가 안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진단해 보겠읍니다。다음으로는 각계 각층의 참신한 불교인들을 널리 발굴, 조직화하여 새로운 불교운동의 방향을 공동모색해볼 작정입니다。』

會長으로 선출된 후 첫소감에서 朴동문은 거창한 공약이나 형식적 사업을 내세우지 않고 現代人의 생활속에 살아있는 行動佛敎를 새롭게 정립해 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佛敎青年會부회장(63년)、전국불교신도회 사무총장(64년)및 常任副會長、서울불교신도회장등 신도계의 요직을 두루 거친 朴동문은 敎理및 佛心의 확대를 위해 68년부터 불교교양지「法輪」을 창간、發行人을 맡으면서 계속 불교운동을 벌여온 宗團의숨은 일꾼。

한국불교는 이제 古代의중국 지혜에 결합된 中國化된 불교를 1천6백여년동안 수용해온 구태를벗고 오늘의한국현실에맞는 敎理 재해석을 정립해야 한다는것。朴同門은 또한佛敎신도의 종단운영참여를 실현하기위해 신도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한편 회비운동、理事陣의 대폭확충(5백여명)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때 萬海 韓龍雲선사의불교청년회를 재건하는일에 투신、전국적인조직을 결성하고 불교청년운동에 앞장서기도했다。먼저 자기를 완성시키고 나아가 이웃과사회에 봉사하는자세로 살아왔으며 불자로서의 주어진책임을 강조해온 朴동문이 회장에 다시선출되자 그를아는 주변사람들은그의앞으로의 임기(4년)동안 신도회가 크게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同門동정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時調詩人協 시낭송회열어
金魚水동문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金同門은 제4회민족시낭송회(한국현대시조시인協주최)를 지난 6월25일하오6시30분 시내 중구체육회관앞 성궁다방에서 가졌다。金동문은 지난3월초 창립된 同협회초대회장에 피선된바 있는데 현재 40여년동안의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詩作활동으로 시조문단을 지켜오고있다。

「如初題 南澗畫展」마쳐
如初 金膺顯동문

서예가 如初 金膺顯(48전문)동문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종로구 安國洞 百想기념관 전시실에서 「如初題 南澗畫展」을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如初의 글씨와 동양화가 南澗 金基赫씨의 그림이 함께 들어있다。

世界국제법協會세미나주관
林德圭동문

世界 國際法協會 한국본부 회장직을 맡고있는 林德圭(60법학·국회의원)동문은 지난 5월14일 프라쟈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본부 정기총회및 세미나를주관했다。

세계 국제법 협회는 1873년 벨기에에서 창설됐으며、현재 공산권을 포함、전세계에 50여개 지회、5천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林동문은 同會 초대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지난해3월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됐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李範錫외무부장관등관계 인사가 참석、國際化 시대에 있어서의 외교적 역할등 한반도의 제반문제에 대한 토론과 외무장관 주최 만찬이 있었다。

大邱원호지청장으로
李相律동문

李相律(57법학)동문이 大田 원호지청장에서 大邱 원호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李동문은 원호처 진주지청장、光州지청장、원호국장등 원호처내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원호대상자의 후생복지에 앞장서오고있다。

韓國保險學會회장에 선출
朴恩會동문

朴恩會(61英文)동문이 한국保險學會회장에 선출됐다。

대한재보험사장、한국자동차보험사장、대한보증보험사장등을 역임한바 있는 朴동문은 지난80년 모교에서「재보험의 위기 해결을위한 연구」로 경제학박사학위를 수령하기도 한 보험업계및 보험학계의 권위자이다。

지난 71년부터 출강해 오던 成均館大 경상대 교수로 재직중인 朴동문은 본회 부회장으로도 활약한 바 있으며 저서에는「보험 경영론」「보험론집」등이있다。

2천만원 稿料 長篇소설 당선
金臣동문

東國文學의 저력 과시
小說文學제정—권위있는 登龍門

金臣(82인철)동문이 小說文學社 제정「제3회 2천만원 고료長篇小說」모집에 당선됨으로서 소설가로 첫발을내딛었다。

小說文學社 장편소설모집은 거액의 상금과 권위를갖춘 등용문으로 이번 金동문의 당선은 줄기차게 뻗어져 내려오는 東國文學의 저력을 文學界에 과시한 셈。

당선작품은「大學別曲」。내용은 4년간의 大學生活을통해 작자가 인식하게된 大學人들의 稚氣와 그속에서 싹트는 고통을 그린것이다。

金동문은 모교 인철과를 졸업한 뒤 대작을산출하기 위해 직업을 갖지않고 사색과 체험、그리고 창작에만 전념해왔다고한다。본명은金弼臣。

『소설이란 文學 장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발언을 할수 있게 된것이 한없이 기쁘다』며당선소감을 말했다。

존재(있음)이유에 대한 꾸준한 탐구가 곧小說(文學)이며 이번 당선작도 바로「왜 이렇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떠한 문학론에 얽매이지 않고 千의 얼굴과 千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어느 한곳에 한정 집착하지 않고 다양하게 넓혀 보겠다는포부를 밝힌다。

『소설은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신의 작품에선 문학성뿐만 아니라「재미」를함께 추구해보겠다고。소설속의 재미는 말초적 쾌감의 것이 아니라 지적 재미여야겠다고 덧붙인다。

平統회의參席次 일시귀국
李俊九동문

작년말 83년 미독립기념행사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바있는 李동문이 지난 6월초 명예平統 자문위원으로서평통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李동문의 미국명은 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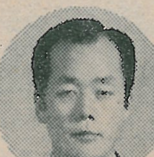
「佛敎新聞」主筆에 취임
金喜午동문

金喜午(64政外)동문이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인「佛敎新聞」주필에 취임했다。

金동문은 66년 모교 大學院 政外科를 졸업한 뒤 모교 부설 法政研究所 幹事를 지낸바있으며、호남每日新聞 논설위원、도서출판 總和閣 대표를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言論·出版界에 종사해 왔다。

현재 崇田大 法政大 교수로 재직하면서 母校에도 출강중。또한 金동문은 社團法人 韓日友和協會 理事、內外經濟法研究所 소장을 맡으면서 폭넓게 社會活動을 하고 있다。대한불교 전국신도회 기획이사로서 포교활동에도 앞장서 오고있다。특히 本會 理事、常務理事로서 모교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있는 것으로 東國人에게 잘 알려져 있다。

大韓投資信託理事로 승진
申年秀동문



申年秀(65경제)동문이 大韓投資信託理事로 승진했다。

申동문은 朝興銀行·신탁은행을 거쳐 77년 대한투자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明洞支店次長、반포지점장、관리부장、운용부장등을 지냈다。판단력이 빠르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申同門은 전형적인뱅커。

外換銀홍익동支店 準備委長에
申定淳동문

申定淳(64행정)동문이 韓國外換銀行홍익동지점개설 준비위원장으로 영전했다。

申동문은 외환은행 대구지점대리、본점감사실과장、인도네시아지점 차장을 거쳤으며 그동안업무부 차장을 맡아왔었다。

榮進·轉補

▲羅聖奎(65상학)=제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충무로지점 차장으로。자택도 강남구역삼동69번지 삼익아파트2동208호로 이사。

▲金圭勳(69警行)=경위인 金동문은그동안 경찰종합학교 학생대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4월 전북경찰국 작전과 장수전경대장(경감)으로 승진발령。

▲李仁昌(82회계)=KAL 수입 관리부에서 現代중전기 업무부로。

移轉·開業

▲元永常(63경제)=중구신당동366의111호로 이사。사무실(세화산업)은중구충무로2번지13호로 이전。사무실 전화는 267-2877

▲許萬位(73행정대원)=성북구성북동1가 113의4로 이사。

▲朴壽天(77행정 새한종합금융)=강남구방배동725 방배 삼호아파트 가동106호로 이사。

▲崔昌述(77僧伽)=마포구 망원동437의 1번지 306호로。

▲朴文高(78무역·大韓敎育保險株 企業保險部)=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광명아파트내 200의21 관리사무실 2층으로 이사。

▲黃太亨(81경영·미륭건설株 자금부)=강남구 서초동130 삼호가든 3차아파트 A동 301호로。

出入國

▲許順五(69行政大院)동문=全韓國부동산연합회 회장인 許同門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세계부동산연맹회의에 10명의 한국 대표와 함께 참석코 귀국했다。

▲李肯珪(65법학·경향신문심의부차장)동문=에이레 더블린에서 개최된 國際記者聯盟 집행위원회에 참석차 지난5月27日 출국했다가 6月8日 귀국했다。

李同門은 지난3月 한국기자협회 제19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유임됐었다。

▲趙廷來(66국문)=文人 海外연수단의 일원으로 지난 6月1日 출국、인도·요르단·그리스·프랑스등지를돌아보고귀국。

會費入金現況

◇常務理事會費

▲鄭海秀(49전문)=20만원

累計=80만원

◇理事會費

▲鄭求徹(59정치)=2만원
▲柳英樹(66행정)=5만원
▲金福男(60경제)=″
▲玄平孝(51국문)=″
▲崔成福(66법학)=″
▲朴瑾浩(70행정)=10만원
▲全炳喜(68경제)=5만원
▲洪元杓(68정치)=″

小計=42만원
누계=87만원

◇특별회비

▲任香根(65경제)=20만원

◇단체회비

▲예산동문회(회장 조옥현外9人)=5만원
▲포항동문회(회장 한만오外9人)=5만원
▲전북지부동문회(회장김삼용外 월례회원일동)=10만원

◇年會費

▲兪仁在(61법학)=1만원
▲南敬模(78전산)=″
▲尹泰領(76행정)=″
▲鄭樂燮(80행정)=″
▲金相球(80행정)=″
▲金相奎(69법학)=″
▲李濟根(73경제)=″
▲朴殷哲(79무역)=″
▲申勇男(79무역)=″
▲鄭己永(80연영)=″
▲金海鎰(76행정)=″
▲安東錫(77행정)=5천원
▲安承奉(79무역)=1만원
▲韓龍煥(77정외)=5천원
▲金榮燮(79농경)=1만원
▲柳基榮(65영문)=5천원
▲崔恒根(62경제)=″
▲金惠鏞(83경제)=″
▲崔天一(80경영)=″
▲李光勳(74경영)=″
▲金朱泰(70정외)=″
▲沈祥燮(77식공)=″
▲黃壽鎭(76건공)=1만원
▲高興新(79물리)=5천원
▲주간택(77건축)=1만원
▲金鍾洴(76무역)=5천원
▲鄭仁和(경영)=1만원
▲金容仁(75경원)=1만원
▲李聖宇(76전자)=″
▲張壽星(56정치)=5천원
▲洪性均(59경제)=1만원
▲崔勝在(71입학)=″
▲金孝正(64화학)=″
▲黃圭哲(63경제)=5천
▲金再鎭(71농학)=″
▲崔熙鍊(48문학)=″
▲張明熙( )=1만
▲李成求(61영문)=″
▲金任柱(66상학)=″
▲申在禹(68경영)=″
▲申 명(76행원)=″
▲李晟默(60대원)=″
▲곽민일(경원)=2만원
▲이윤근(81경행)=1만원
▲金在聖(83경제)=″
▲馬慶子(53국문)=″
▲鄭址燦(58경제)=″
▲金德謙(71농학)=″
▲金壽煥(61경제)=″
▲權永弼(61경제)=″
▲金大元(61경제)=″
▲崔允植(61경제)=″
▲閔瑛植(61경제)=″
▲金炯成(61경제)=″
▲金 旭(61경제)=″
▲李海卨(62경제)=″
▲李澤秀(61경제)=″
▲孔珍植(61경제)=″
▲徐榮鎭(61경제)=″
▲沈甲植(62경제)=″
▲金基俊(61경제)=″
▲朴始元(61경제)=″
▲朴海春(61경제)=″
▲李斗浩(61경제)=″
▲趙雄熙(61경제)=″
▲吳桂泰(61경제)=″
▲吳東益(61경제)=″
▲金濟局(61경제)=″
▲金영均(63경제)=″
▲朴永燦(61경제)=″
▲洪柱璨(62경제)=″
▲金世寧(62경제)=″
▲李昶燮(67상학)=″
▲沈炳燮(64영문)=″
▲安在浩(64경영)=″
▲朴性天(64상학)=″
▲張姬子(74국교)=″
▲朴壽哲(57입학)=″
▲李同根(79국교)=″
▲申晋澈(64영문)=″
▲白種선(80국사)=″
▲金容吉(59법학)=″
▲姜泰弘(56경제)=″
▲金興云(61사학)=″
▲許 鎭(71식공)=″

小計=78만5천원
累計=2백74만원

◇人名錄代金

▲鄭貞鉉(80경원)=1만원
▲姜秉國(68농경)=″
▲閔鉉哲(69국문)=″
▲崔勝在(71입학)=″
▲禹國一(78행원)=″
▲金鍾赫(55영문)=″
▲포항동문회=1만원
▲朴鍾浩(60정치)=″
▲鄭址燦(58경제)=″
▲朴壽哲(57입학)=″

小計=10만원
累計=47만원

※제82호 본란 崔基熙는 崔在熙로 바로잡음。